

천주교 환경교육의 운영 방안과 흐름

박혜순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사무국장/서강대 철학과 박사과정)

I. 천주교 환경교육의 흐름

1. 환경교육의 시작

이 글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환경사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천주교에서 환경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1년 3월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보전부에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최한 「제1회 어린이 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회에는 30여개 본당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어 1991년 6월 19일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질서 보전과 완성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이 행사를 통하여 가톨릭 환경운동의 중심체가 마련되었으며, 환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교회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 후, 「하늘, 땅, 물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이 결성되었고, 이 모임에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전문가, 실천가)들이 참여하여 매월 1회의 정기모임을 가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2년부터는 보다 활성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었으며 그 방법은 「환경과 생명」이라는 대주제하에 교육대상, 종류, 장소 선택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한 각도로 접근되고 있다. 천주교환경교육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교육하면 강의실을 연상하지만 천주교의 환경교육은 장소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다. 강의실에서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 강의실을 벗어난 체험교육과 의식전환을 꾀하는 홍보매체를 통한 교육 및 실천운동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는 간접적인 교육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천주교회에서 하는 모든 환경활동은 교육과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교육대상부터 살펴보자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직장인, 주일학교교사, 초중등교사, 가정주부, 사제 등으로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다. 교육장소 또한 다양하다. 초기에는 주로 명동성당에서 신자들을 모아 강의를 듣고 행사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각 지구 본당으로 나아가 보다 많은 신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당중심의 환경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론적인 교육을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체험하는 형태의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장소나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행한 환경교육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한 환경교육은 주로 포스터 그리기나 자연학교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1992년 3월 22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나무야 고맙다」라는 주제하에 「제2회 어린이 환경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 이후, 이 대회는 1996년 6월 2일까지 제6회 실시되었다. 또한 1992년 8월 10일-8월 13일까지 3박 4일간 춘천교구 서석본당내 삼생국민학교(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1리)에서 초등 4-6학년 어린이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여름 대안 캠프로 「제1기 천주교 어린이 자연학교」를 개최했으며, 자연 속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대상의 자연학교는 1995년 8월까지 매년 계속되었다.

자연학교의 운영방법과 방향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을 동양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만나고자 한다. 동양적 방법이란 자연과 인간 사이에 분리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관적인 만남으로 서양의 이원론적인 관찰법과는 다른 방법이다. 분석과 관찰을 최고의 잣대로 삼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림과 동화를 통해 자연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다.

종교적인 방법이란 고요함 속에서의 만남을 이야기한다. 정좌와 명상을 통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다음 자연을 만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자연의 걸뿐만 아니라 속까지 만나는 데 유용하다.

둘째,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한다. 이제까지의 캠프에서처럼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끌려다니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

셋째, 자연학교 전기간 동안의 모든 생활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한다. 음식도 현미밥 된장국 등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식으로 하며 치약대신 죽염을, 중성세제나 샴푸 대신 무공해 비누를 사용함으로써 문명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두려움을 불식시킨다.¹⁾

위에서 보다시피 자연학교는 운영방법에 있어 동양적인 유연성을 채택하고 있는 한편 아래와 같은 자연학교 기도문을 함께 바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앙과 연결시키고 있다.

2. 자연학교 기도문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모든 것에서
당신의 손길을 느낍니다.

당신께서는 하늘, 땅, 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벗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새와 동물과 꽃 그리고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벗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벗으로부터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벗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방학을 이용한 자연학교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3년 1월 산정호수에서 2박3일간 중고등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제1회 천주교 청소년자연학교」를 개최하였는데, 1-2회는 일반 중고생을 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3회는 예비신학생(중2) 14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강원도 화천에서 3박4일간 자연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제직을 지망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한 점이 눈에 띈다.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교적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고 보인다. 1994년 2월 세미나 형태로 환경문제를 점검해 보고 그 대안과 운동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제1회 청년 환경학교」가 개최되어 청년 27명이 수료하였고, 3회까지 지속된 뒤, 교육을 받은 청년들 20여명이 주축이 되어 1996년 6월 청년들에게 환경오염의 위기를 인식시키고 올바른 환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천주교 청년환경봉사단 창단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일반신자들의 환경교육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모로 애써왔다. 1992년부터 자원재활용운동과 구체적인 삶에서의 환경실천운동을 위해 우유팩 모으기를 실시하여 서울교구 88개 본당에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기초단계의 환경 교육 일환으로 1992년 3월 「제1회 천주교 환경학교」를 시작하여 일반신자 115명이 수료하였고, 이후 1998년 4.22-6.10까지 제16기를 배출하는 동안 약 1,200명이 이 과정에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였다. 또한 1992년 3월 부활절을 맞이하여 재생종이로 부활절 카드를 제작하여

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연학교 이렇게 했어요」 6쪽, 1992년.

일반신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재생용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 몫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리고 이어 그 해 6월에는 명동성당에서 일반신자 5,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행사는 환경 세미나, 환경용품 전시 및 판매, 비누 만들기 등의 실습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일반신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2회부터는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보강하여 '천주교 환경상'이 처음 제정되었고, 자연사랑이야기도 처음 공모하였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참가대상도 2만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환경공헌단체들을 격려하는 좋은 기폭제가 되었다. 4회째부터는 행사를 통한 환경의식 고취, 교회내 환경운동에 대한 홍보프로그램(기조강연 및 시상식, 전시마당, 판매마당, 교환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인형극 공연 등) 대폭 보강되었다.

이밖에도 가정주부들을 위한 알뜰시장 장보기, 공동으로 비누 만들기, 메주쭈기와 장 담그기 행사, 오리쌀 농사를 위한 오리넣기 행사 등을 통해 유기농에 관한 정보를 얻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부들이 환경운동 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식을 암암리에 일깨워왔으며, 직장인, 주일학교교사 등에게도 집중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문제가 결코 나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 초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환경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제들에게 환경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일반신자들의 의식각성과 본당의 자발적인 변화를 꾀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II. 환경교육의 종류

환경교육의 종류환경교육의 종류 역시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는 「천주교환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된 「청년환경학교」, 「농촌학교」, 「자연학교」가 생겨나고 환경학교와 농촌학교를 통합하여 「녹색학교」를 실시하고, 인간과 자연생명에 관한 포괄적이고 신학적인 접근으로 마련된 「참생명학교」를 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열거한 대부분의 교육은 주로 중앙에서 실시한 것인데 비해, 본당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도 상당히 많다.

그 예로 천주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내며 약 4주정도,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내면서도 약 4주정도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관례이다. 이 때 환경교육은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매력적인 주제로 떠오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5년 3월부터 도봉동 성당을 비롯한 서울대교구 소속의 많은 성당에서는 환경오염실태 고발 및 신앙인의 자세 인식; 「밥의 위기 생명의 위기」, 「환경오염과 지구의 위기」, 「더워지는 지구와 대기오염」, 「중금속 오염, 폐기물」, 「생활속의 환경실천」, 「환경보전을 위한 신앙인의 역할」 등에 대해 사순절 및 대림절 환경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사순절이나 대림절이 아니더라도 간혹 본당에서 강사들을 초빙하여 환경특강을 열기도 했는데 1995년 6월 돈암동 성당 일반신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고발 및 신앙인의 자세 인식에 대한 환경특강 등이 그 예이다.

이보다 좀더 심화된 교육으로는 워크숍을 들 수 있다. 1996년 8.24-8.25(1박2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보전부 관련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환경운동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고, 이후 추진위원 연수, 환경감시단 교육 등의 워크숍이 간간이 진행되었다. 다른 단체에서 행하는 워크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제의 중심에 늘 신앙의 실천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교회 환경교육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바로 이 신앙의 실천이라는 점이다. 환경을 보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신심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은 일관된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천주교회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환경답사 및 현장답사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1993년부터 환경학교 수료생 30명을 대상으로 중랑하수처리장/목동에너지관리공단/집단지너지 사업본부 등을 답사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환경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 청주공장,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인천) 등 다양한 현장을 둘러보며 보다 생생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다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는 대중들을 위해서는 특별초청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1993년 10월 손 맥도나 신부를 초청하여 일반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환경과 파괴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개최하고, 명동성당 교육관 203호에서 환경운동가 50여명과 함께 환경, 개발, 성서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제평생교육원에서는 일년에 두 번 보좌신부들을 모아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1998년부터 「환경과 생명」이라는 주제가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4월27일-4월29일(2박3일간) 의정부 한마음수련장에서 실시된 보좌신부 집중교육에 「생명신학-환경과 농촌운동」이라는 프로그램에 18명의 사제가 지원하여 수료하였으며, 이 후, 매년 2회씩(2박3일간) 사제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육은 사제들의 의식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교육받은 사제들이 중심이 되어 본당의 환경의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사제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이 실은 교회 환경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천주교회의 조직을 잘 이용한 교육으로는 「서울대교구 구·반장단 전체교육」을 들 수 있다. 구·반장단 전체교육은 지구별로 거의 일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9년부터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주제로 환경이 자리잡게 되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이미 1999년 서울대교구 구역장, 반장단 전체 교육에 「자연사랑은 하느님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참가하여 10,000여명을 교육하였고, 환경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각 본당의 구역 및 반모임 때 활용하도록 장려하였다.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어떤 형태로든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92년 11월부터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환경학교 수료생 45명을 대상으로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월레미사 및 월레강좌」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매년 생명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이 모임을 계속해 오고 있다.

1. 교육자료

교육자료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8월 제1회 천주교 어린이 자연학교 자료집(한마음한몸운동 환경자료집1) 「자연학교 이렇게 했어요」를 시발점으로 1993년 1월 「제1회 천주교 어린이 자연학교 자료집」을 제작하여 각 본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사제들에게 배포한 이후 매 교육 때마다 자료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1998년 10월에는 환경교육용 비디오 「하늘·땅·물·벗」을 제작하여 평화방송을 통해 방영하고 각 본당 및 수도회에 교육자료로 배포하기도 하였다. 1993년 10월 손 맥도나 신부 초청강연집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땅의 절규」와 1998년 12월 창조 7일을 중심으로 교회 환경영성서적 「녹색성서」 3000부를 발행하여 서울교구의 모든 사제에게 발송하고 가톨릭출판사를 통하여 일반신자에게 보급하였으며, 1998년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전신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농촌관련 홍보지 「하늘·땅·물·벗」(8면)을 매월 13만부씩 발행 배포하였으며 그밖에도 다수의 관련 자료집이 간행되었다.

또한 서울주보를 통해 환경캠페인, 환경사목에 관한 글을 수시로 게재하여 일반신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관한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부활절 카드, 사순절 환경카드 등의 주제를 환경으로 잡고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경실천에 참여케 하기도 한다. 더불어 평화신문, 평화방송, 가톨릭신문 등의 교회 언론매체를 이용해 환경에 관한 기사를 수시로 내보내는 한편 1998년 6월부터는 천주교서울대교구 평신도사목국 「소공동체 길잡이」에 환경실천사항에 관한 원고를 매월 신고 있다.

III. 환경교육의 전환

2000년 10월 25일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보전부는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로 독립함으로써 창립선언식을 거행하였고, 천주교환경환경사목위원회는 환경문화 개발과 정착을 위해 연구, 교육, 실천운동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환경사목위원회는 보다 전문화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교육도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바꾸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피교육자를 부르거나 또는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를 탈피하여 교육에 앞서 피교육자들의 지역문화 및 생활수준 그리고 지식수준 등을 먼저 파악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한 뒤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로 박문여교의 「박문녹색학교」, 영덕군청의 「영덕녹색환경대학」, 마석성당의 사순특강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간」, 가락성당의 테마교육; 「첫번 째 에코 폴리스」, 「에코 카니발」 등을 들 수 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란 말 그대로 환경과 생명이 주제일 뿐 나머지 일체는 피교육자가 원하는 형태로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이때 장소와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답사부터 해야한다. 즉 도시인지 시골인지, 거주지역이 아파트단지인지 주택단지인지, 서민층인지 부유층인지, 그리고 그 지역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고 피교육자들의 지식수준과 삶의 방식 등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교육을 의뢰한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메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예를 들어,

① 인천박문여교의 경우, 「박문녹색학교」 2는 고3학생들이 주 대상이고 10개의 반이 인문, 자연, 예체능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교육기간이 수능시험을 치른 직후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론적인 면보다는 머리를 식히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이벤트화 하는데 주력했으며, 10여명의 강사진도 수업을 진행할 능력과 학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층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고1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요박문학교」의 경우에는 10개반의 정규 수업시간을 할애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다 이론화된 수업으로 이끌어가도록 유도했으며 10여명의 강사진 모두 환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거나 전문적인 활동가 중심으로 선정했다.

2001년 9월말에 예정된 박문여교 가을학기 환경교육은 학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경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은 준비와 진행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끝난 뒤의 뒷 작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주요사항이다. 교육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다음 교육을 준비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길이 없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사무위원회는 매번 교육할 때마다 설문지를 3종류씩 준비했다. 강의를 듣는 청중용 1부, 교육에 참여한 강사용 1부, 그리고 참관교사 또는 스텝용 1부. 이렇게 모은 설문지는 통계와 분석작업을 통해 평가회의 자료로 삼고, 평가회의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진들과 스텝들 그리고 교사대표가 함께 모여 교육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해둔다. 박문평가회의에서 거론된 안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강사 10여명이 모두 다른 주제로 강의하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될 우려가 있다.

셋째, 그러므로 교안이 마련되면 교육에 앞서 강사진끼리 2박3일 정도 연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강의할 내용을 들은 뒤 회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이 끝난 뒤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② 영덕군청의 「영덕녹색환경대학」 경우는 군청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의뢰해온 예이다.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오폐수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민들과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축산폐수를 많이 내는 축산농가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지역주민 대부분이 환경의 유기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생태계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중점을 두어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환경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주역으로 앞장서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거리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 사전답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강사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또한 영덕군의 특색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강사진이 잘 모르고 있었다. 그 지역에 골포장건설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

는 강사가 골프장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자 예기치 못했던 돌발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어 난처했던 예도 있었다. 교육이전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던 예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가 환경교육을 매개로 만나 함께 했다는 점과 교회환경활동이 교회 내로 국한되지 않고 지평이 확대되었다는 언론의 평도 있었다.

③ 마석성당의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간」은 사순특강으로 마련된 것인데, 신자들로 하여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께서 세우신 창조질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환경에 관한 새로운 관심과 문제의식을 유도하고 지역의 환경문화를 창출하고 형성해 나가는 주역으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진행에 있어서도 본당 주임신부님이 부활을 맞는 보속으로 삼자고 격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④ 가락성당의 테마교육; 「첫번 째 예코 폴리스」는 150여명의 중고생을 학년별로 나누어 주제를 달리한 수업방식을 채택했다. 이 때 특징은 푸른기자단의 운영이다. 중3과 고3학생들을 푸른기자단으로 뽑아 각반 수업을 취재하게 하고 환경기사를 쓰게 했으며 일년간 취재한 기사를 모아 신문과 영상물을 제작하여 연말에 종합보고회를 갖게 할 예정이다. 「예코 카니발」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행사로 채워질 것이며, 청소년 환경캠프는 프로그램 없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삶을 정리해보는 형태로 기획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들의 경우, 교육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액을 환경사목위원회가 부담했다. 처음에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비용부담이 가능했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자료집 이외에 강사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 반면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환경교육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환경교육을 시킬만한 교사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학교가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박문여교와 같이 환경교육에 뜻 있는 학교가 있다해도 외부 단체에 환경교육을 위탁해야 하는 처지에서는 강사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환경교육은 거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에 있는 형편이고, 교육부나 환경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주교의 환경교육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과 종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교육매체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10여년에 걸친 환경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환경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했고, 교육 역시 단계적으로 심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들이 늘 달라짐에 따라 입문단계의 내용으로 일관했다는 점도 시정 보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교육을 받고 환경에 관한 실천운동을 하고자 의욕이 분출해도 그것을 받아들여 활동으로 연결시킬만한 적절한 실천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 어느 곳이나 천주교회가 들어서지 않은 곳은 없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교구별로 하나의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가톨릭 교회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단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그 조직체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구별로 환경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교구별로 연대하여 지방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심화된 환경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